논어 3편 팔일 18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事君盡禮，人以爲諂也。」

독음 · 자왈 사군진례 인이위첨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임금을 예에 맞게 정성껏 섬겼더니 사람들이 아첨이라고 여겼다. 당시 예가 무너진 세태를 드러낸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事 일 사 사 / 君 임금 군

盡 다할 진 진 / 禮 예도 례 례 / 人 사람 인 / 以 써 이 이

爲 할 위 / 諂 아첨할 첨 첨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